

# 북한개발소식

# 01

2022 JAN | 통권 195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기독교 박해 - 동향과 시사점



#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시사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2 JAN

이달의 주제 :

### 북한의 기독교 박해 - 동향과 시사점

- 권두칼럼 01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시사점
- 칼럼\_1 08 오픈도어 현장사역자\_ 박해받는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 칼럼\_2 13 김영길\_ 분단 후 북한교회의 박해와 실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책임
- 칼럼\_3 20 이승주\_ 김정은 집권기 북한 기독교 양상과 박해 현황
- 탈북민 인터뷰 25 기독교 박해 증언: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리 지하교회당 사건
- 북한 뉴스 32 영국 NGO 한미래(Korea Future), 북한의 종교박해 관련 보고서 잇달아 발표
- 서평 35 Two tears on the window- An ordinary Canadian couple disappears in China.
- 북한 기도 제목 40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북한은 방역을 명목으로 느슨해졌던 통제를 강화하는데 애쓰고 있다.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는 물론이고 이전에 북한개발소식을 통해 다룬 바와 같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추가로 확충한 정황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불순한 물품을 소지 및 관련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강화되어가는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 기조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외부 사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와 지하성도들을 겨냥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북한의 박해상황 관련 사건

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매우 제한되고있고, 이로 인해 북녘의 성도들의 겪고 있는 고난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숫자가 급감하고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타 연구기관들의 북한 인권 및 종교 자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약은 단순한 정보 확보의 이슈일 뿐, 실제 박해가 감소했거나 박해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음이 북한 정권의 현 정책 방향과 이로 인해 야기된 상황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스스로의 어려운 처지에 쏠려있는 나머지 북한의 형제자매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심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훌륭한 의료 인프라와 경제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아닌 가



〈북한의 국경 통제로 인해 한산한 단동 세관의 모습 (동아일보)〉

장 폐쇄적인 지역에서 부족한 물자와 인프라 속에 온갖 통제와 핍박의 위협을 견디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임은 명백하다. 하나님께서는 남한의 우리도 돌보시지만 분명 북녘 땅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 대해 더욱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북한의 코로나 방역 통제와 우려

최근 북한의 기독교 박해 트렌드는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통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 목적의 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사조를 걸러내고 사상적인 순수성과 정권의 안정을 위한 통제이다. 현 북한의 통제 정책은 이 두 방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방역을 위한 통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그리고 격리조치를 꼽을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봉쇄와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매우 위축시킨다. 외부로부터의 충분한 물자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이동통제로 사람들의 왕래도 어려워지면서 장마당 활동 전반이 위축되었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의 위축을 역으로 이용해 국가 주도의 경제에 힘을 싣는 모양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개인 운영 장마당을 금지하고 모든 장마당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이발관, 미장원, 가정교사, 길거리 음식 장사, 길거리 상품 판매, 리어카꾼, 자전거꾼 등 상인들의 사적 거래도 차단하고 국가 운영 편의봉사소나 급양관리소, 여객사업소 등 국가 운영 기관에 소속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식량판매소를 신설하여 국가 기업소가 식량 및 식료품 판매를 담당하고 개인들의 식량 거래는 제한하고자 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sup>1</sup>

방역 명목의 이동 통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등과 맞

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서너명이 모이는 모임도 단속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인적 통제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문소들이 설치되었고 통행증 확인도 더욱 철저해졌다. 이에 더해 차량의 경우 방역검사증이 필요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도 위생방역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맞물려 미디어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분별한 격리와 체포의 증가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전파를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며 격리자들에게 충분한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제대로 된 코로나 검사나 의료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격리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사망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격리되었거나 격리 후 해제된 인원이 국경봉쇄 이후 21년 11월 기준 누적으로 18만 명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sup>2</sup>

이러한 격리 조치와 함께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비상방역법의 내용을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벌금과 함께 교화소 수감은 물론이고 지시 불이행의 죄목이 적용될 경우 무기형 또는 사형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sup>3</sup> 해당 법은 매우 소소한 부분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버스에 사람을 비좁게 태우는 것만으로도 북한돈 10만-5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 내 쌀 가격이 1kg당 5000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이다.<sup>4</sup> 특히 외부 물품 반입이나 각종 모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퍼지거나 외부 정보가 흘러가는 것, 그 외 비밀 종교 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탄압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코로나 방역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을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sup>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료 인프라의 수준과는 별개로 코로나로 인한 봉쇄조치를 실시하

1 “北, 장마당 금지... 식량거래 통제 나섰다”, 조선일보, 21. 03 04,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3/04/YZOFXXKGZFDTOBM4L7JT6ZU7A/](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3/04/YZOFXXKGZFDTOBM4L7JT6ZU7A/)>

2 장슬기, “코로나 확진자 ‘0’이라더니...격리시설 수용 北주민 10만명 넘어”, 데일리NK, 21.11.18, <<https://www.dailynk.com/코로나-확진자-0이라더니격리시설-수용된-北/>>

3 정광성, “북한의 ‘비상방역법’ 코로나19로부터 평양을 사수하라”, 월간조선, 21.05,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105100056>>

4 안창규, “북, 코로나 방역위반 행위에 턱없이 높은 벌금”, 자유아시아방송(RFA), 21.09.29.

5 이호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시 정치범수용소行...특대형 범죄 낙인”, 데일리NK, 20.12.21, <<https://www.dailynk.com/코로나-방역-수칙-위반시-정치범수용소行-특대형-범/>>



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동통제나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와 국가식량판매소 확대 등의 조치도 경제난 속에서 불안정한 시장 활동과 심해지는 식량 및 물품 가격 변동에 대응해 주민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식량을 공급할 수도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sup>6</sup> 문제는 이러한 통제 활동이 과도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처벌 또한 그리하여 주민들의 권리 침해해 넘어 공포심을 자아내는 수준이며, 단순히 보건과 경제 이슈에 머물지 않고 사상적인 통제와 억압의 도구와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북한의 사상문화통제와 기독교 탄압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및 시행은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가 단순 코로나 방역 때 문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북한은 작년 12월 열린 제 14기 제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법배격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이나 책자 등의 유입, 소지 및 배포는 물론이고 남한풍의 행동이나 어투까지도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시 기존 북한 형법에 언급된 형량에 비해 1, 2단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정치범 수용소 수감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직접 언급되어있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포함한 기독교 물품과 신앙 활동이 법에서 언급하는 주요 단속 물품과 행위에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 역시 해당 법령의 주요 표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109상무 등의 특별 단속반을 조직하여 한류를 비롯한 외부 미디어나 사조의 유입을 단속해왔다. 하지만 관련 이슈로 공식적인 법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법의 제정은 단속활동 강화로 이어졌고, 해당 법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유래 없는 중형이 구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진시에서는 최근 화제가 된 “오징어게임”을 시청한 북한의 고등학생 7명이 검열에 적발되었는데, 이들에게 최소 5년에서 무기형의 중형을 구형되었고 판매한 이는 총살형에 처했다는 사건 보도도 나오고 있다.<sup>7</sup> 유엔 키티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측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하기도 했다.<sup>8</sup>

기독교 관련 물품이나 활동도 중요한 단속대상이다. 정보의 제한으로 북한 내에서 발생한 단속사례나 구체적인 사건은 확인이 어렵지만 해외 주재원에 대한 불시 검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경책이 주요한 단속 물품으로 거론되기도 했고<sup>9</sup>,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 교육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반기독교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등<sup>10</sup> 기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적개심과 단속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성탄절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반사회주의문화로 지목하여 해외 주재원들에게도 성탄절 문화를 따라하거나 축하하는 모습이 적발될 시 반동으로 처벌된다.<sup>11</sup> 기독교 문화의 유입을 매우 경계하는 것이다.

북한의 외부 문화와 사상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방역 목적의 통제 기조와 맞물려 그 강도가 전례없이 강화되었으며, 그만큼 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가 증가했으며 수감자 수가 최근 1-2년 사이에 2만명 이상



〈20년 10월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요원이 통제하고 있다. (AP)〉

증가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추정이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북한 내에서 비정상적인 수준의 통제와 처벌을 동반하는 공포와 위협을 이용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해보이며, 여기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입막음하고 정권에 반하는 어떠한 사소한 행위라도 엄벌하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통제 정책을 단순히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한층 더 심해졌음은 물론이다.

### 정보차단과 관심 부족 속에 잊혀진 형제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북한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단편적으

6 실제로 최근 북한의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참조: 이지윤, “북한 곡물 가격 급등과 생활고 가중 - 북한 장마당에서 곡물 가격 급등세, 고물가 해결 위한 북한의 규제와 대책-”,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10.25.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91469>

7 “북, ‘오징어 게임’ 시청 학생들에 중형 선고”, 자유아시아방송, 21.11.2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quidgame-11232021075345.html>

8 “유엔보고관, ‘남영상유포시 사형’ 北반동문화배격법 우려 서한”, 연합뉴스, 21.08.27.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83400504>

9 北 당국, 中 주재원 대상 검열 강화... “불시에 가택 수사”, 데일리NK, 20.12.22. <https://www.dailynk.com/北-당국-中-주재원-대상-검열-강화-불시에-가택-수/>

10 “통일 후 탈북자 우선 처단...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교육서 강조”, 데일리 NK, 21.05.08. <https://www.dailynk.com/통일-후-탈북자-우선-처단-북한-해외-파견-노동자/>

11 “북, 크리스마스를 대표적인 반사회주의사상문화로 지목”, 자유아시아방송, 20.12.2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12242020231709.html>

12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총 23만2천명...작년 3월比 2만3천명 늘어”, 데일리NK, 21.07.27. <https://www.dailynk.com/210727-5/>



〈북한의 발레 공연 TV 영상의 한 장면. 십자가로 북한 어린이를 살해하는 잔혹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해당 공연은 북한의 반기독교 교육 및 선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로나마 살펴본 것으로서, 그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며 성도들의 고난이 더욱 심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의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이토록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들의 관심도 식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강력한 봉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간 교류 단절은 관련 정보의 부족을 불러왔으며, 이는 실태 파악과 연구 활동에 큰 장애가 되었다. 북한 내 정보가 외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관련 보도나 연구가 대폭 감소하였다. 게다가 그간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연구와 활동에 큰 역할을 했던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함에 따라 연구 활동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관련 조사와 연구가 19년도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통일부의 정책 변화로 올해 종교자유백서 조사 및 출판을 포기한 북한인권정보센

터(NKDB)<sup>13</sup> 나 연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진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조사 활동<sup>14</sup> 등 관련 연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 및 기독교 박해 증가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알릴 수 없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회들의 북한과 북한선교에 대한 관심 저하도 안타깝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예배 및 모임의 제한과 교회활동의 불가피한 위축 속에서 많은 선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었고 북한 선교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개교회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북한 선교에까지 힘 쓸 여력이 부족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핑계가 되어 북한 선교는 지금은(또는 당분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아직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통일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의 논리가 교회 내에서도 종종 들리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논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감당해야 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뒤로 미루면서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허울 좋

게 포장해주는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효율과 효과를 추구하는 논리와는 맥을 같이하는, 우리 귀에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결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엡 5:25)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외면하는,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과는 어긋나는 태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피해 수준과 대응에서 세계적인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미디어에는 유럽이나 미주지역의 코로나 전파상황과 이로 인한 피해가 주로 보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력이 어려운 제3세계의 피해가 더욱 극심했다.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1,2차 접종에 이어 부스터샷까지 접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차 접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국가들도 상당수이다. 북한 역시 의료 역량의 부족을 강력한 통제로 매우고 있지만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난관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통제를 방역 외 목적에 활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그 속에서 특별히 탄압의 대상



이 된 기독교인들이 겪는 고난은 감히 말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닌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분투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욱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북녘의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그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실천일 것이다. ☺

13 “〈2021 북한 종교자유 백서〉, 13년 만에 발간 중자… 왜?”, 크리스천투데이, 21.08.0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750>>

14 “〈단독〉北반발 '인권백서' 발간 예산, 한해 사이 4분의1토막났다”, 중앙일보, 21.08.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30149#home>>

# 박해받는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북한선교현장은 그 어느 현장보다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현장에서의 사역도 일반적인 교회개혁과 신앙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목표를 갖는다. 북한선교현장의 선교사들의 정체성 중 빼놓을 수 없는 정체성은 바로 “전달자”의 정체성이다. 북한선교사는 복음의 전달자, 후원의 전달자, 소식의 전달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성도들은 북한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 지원을 한다. 현장사역자는 성도들의 헌금을 이용하여 신앙물품을 개발 제작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물품을 구입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한다. 물론 이는 복음전도사역과 맞물려 이루어지는데, 북한주민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양육하는 사역의 결과로 혹은 위의 사역과 병행

하여 북한성도에 대한 지원사역이 이루어진다. 편의상 이것을 “역할1”이라 하자.

필자와 같은 북한사역자는 현장사역을 통하여 북한성도들의 소식을 듣게된다. 북한선교현장의 상황과 필요를 보안처리하여 한국과 세계교회에 제공한다. 일부 내용은 기도제목과 후원요청으로 가공되어 자유세계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일부 내용은 북한성도들의 간증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것을 “역할2”라고 하자. 현장에서의 모든 사역은 역할1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교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돕기 위하여 현장에 파송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사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과 신앙 성장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출신의 성도들에게 무언가 주기위하여 파송되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선교현장의 사역자에게 있어 역할2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오픈도어 선교회 국제본부의 수석 전략담당자를 역임한 로널드 보이드 맥밀란(Ronald R. Boyd-MacMillan)의 글은 큰 시사점을 준다. 그는 박해를 경험할 일이 없는 신앙인이 박해받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될 때 겪을 수 있는 번역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델, 경고, 격려이다.<sup>1</sup> 이는 박해받는 성도들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남한을 비롯한 자유세계 성도들이 하고 있는 대단한 착각을 교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에 필자는 보이드 맥밀란 형제의 이론을 북한선교현장에 적용하여 “과연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남한을 비롯한 소위 자유세계의 성도들이 “북한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하는가?”가 아닌 “북한성도들에게 무엇을 얻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 모델

신앙의 모델이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귀감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의 현실가운데 신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통치 하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낸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 왕명도(王明道, Wang Mingdao) 목사는 말년에 박해가 줄어드는 시절 후배 성도들과 박해를 겪을 일 없는 서구의 성도들에게 “당신 자신의 감방을 만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가 말년에 몇몇 젊은 사역자들에게 했다던 “당신은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라는 지적은 신앙으로 인해 마땅히 맞닥뜨려야 할 어려움을 피하려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모델을 제시해준다.

과거 북한선교현장에 큰 사고가 터져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일이 있다.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한국 선교사는 급하게 본국으로 피하고 현장사역자들은 긴장가운데 상황을 주시하였으며 북한 내부의 성도들에게는 곧 있을지 모르는 파급에 대비하게 하였다. 당시 연관된 북한 내부의 성도들 중 초신자들도 있었고 지도자급의 성도들도 한국의 지도자들과 같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우리 팀의 동역자들은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초신자들은 믿음에서 다 떠나겠구나...’, ‘리더급 성도들이 사고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북한내부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믿음이 연약한 성

<sup>1</sup> 로널드 보이드 맥밀란(Ronald R. Boyd-MacMillan)은 오픈도어선교회에 소속되어 냉전시기 동유럽에 성경배달사역, 중국에서 훈련지원사역, 홍콩에서 저널리스트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오픈도어 국제본부의 수석 전략담당을 역임했다. 그의 칼럼 “박해받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는 윌리엄 테일러 엠크 “박해와 순교2”, 2018, CLC, pp.195-214.에 우리말로 소개되어있다.





도들을 격려하고 리더급 성도들은 다가올 어려움에 대응할 계획을 이미 마쳤다는 것이다.

국제 오픈도어가 개발하여 전세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준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폭풍가운데 견고히 서기(SSTS, Standing Strong Through the Storm)”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박해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를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생존할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동남아시아와 페르시아만의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준 훈련이다. 그러나 필자가 북한선교현장에서 경험한바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지역의 성도들은 스스로의 “폭풍가운데 견고히 서기(SSTS)”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고 있다. 즉, 우리가 그들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경고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다. 북한인권정

보센터가 매년 발행하는 북한종교자유백서(2021년은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불허조치로 인해 발행하지 못함), 김병로 외 3인이 쓴 책 “그루터기”, 오픈도어선교회를 비롯한 선교단체들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 전해지고 있다. 수많은 박해사례가 있으나,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일어난 박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만화 목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만화牧사는 평남 출신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평남지역에서 목회를 하였다. 1958년 이전까지의 그의 신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이만화라는 기독교지도자가 북한정권에 위협이 되어 처벌받았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었다. 그는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평북 용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고 그곳에서 신앙인들과 비밀리에 교류하며 성도들로 신앙을 지켜가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1957년 그의 광범위한 신앙 활동이 발각되었으나 다행히 당시에는 큰 처벌을 면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1958년 3월 6일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소위 인권을 옹호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 당과 혁명을 반대하는 기독교 신자 리만화와 같은 적대 분자들을 석방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sup>2</sup>

일설에 따르면 이만화 목사는 평북 용천군

<sup>2</sup> 김일성, 『김일성전집』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391.

내의 10여개 협동농장에 비밀조직을 갖추었으며 성도들로 하여금 1957년 8월 27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보이콧 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1958년 김일성의 연설 이후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사형에 처해졌다고 전해진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세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그들은 불합리하게도 기뻐했다. 둘째, 그들은 모두를 향한 비이성적인 사랑으로 가득 찼다. 셋째, 그들은 언제나 곤란 가운데 있었다. 오픈도어선교회의 설립자인 브라더 앤드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해는 급진적인 삶 때문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우리가 왜 박해를 당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우리는 그 구절과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빙 둘러가서 해석을 하므로 그 말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든다. 혹은 우리는 그것을 단지 사도 바울의 시대에만 적용시킨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급진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열심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에 매우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성도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격려

박해받는 성도들의 간증은 크게 기적적 승리의 이야기와 고난과 인내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중국교회의 박해가 지금보다 심하던 시절 오픈도어의 한 사역자는 북경의 한 성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듣는 승리의 스토리 한 토막마다 열 개의 인내의 스토리들이 있다는 것을.” 북한 내부에도 수많은 승리의 간증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의 대다수는 고난과 인내의 간증이다. 앞서 언급한 폭풍가운데에서도 스스로 견고하게 선 북한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승리의 간증이지만 이만화 목사의 이야기는 고난과 인내의 간증이다. 신약시대부터 그래왔듯이 박해받는 자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인내의 이야기이다. 바울은 고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견딘 자들이 비록 이생에서 승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한다(딤후2:9-12). 필자는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 동영상을 접한 적이 있다. 안면에 장애를 가진 한 성도의 간증을 시작으로 연이어 본 몇 편의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회 간




증들의 목록 중 조희 수와 댓글들이 많은 동영  
상들은 감격과 승리의 간증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같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  
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관심을 얻었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었다. 성도들은 간증을 들  
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고난과 인내의 이야기이  
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역시 영광스러운 승  
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북한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에  
게 주는 메시지도 이와 같다.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때로는 경고를 주  
기도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  
님을 붙들려 발버둥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준다.

남한교회의 물질적 후원은 북한의 교인들에  
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로부터 더 귀한 것을 받는다. 그것은 우  
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모델, 경고, 격려 이다.  
우리가 주는 도움은 주로 물질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이

야기들이다. 박해받는 교회와의 만남은(그것  
이 잠시동안 혹은 간접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 박해  
받는 성도의 간증을 통해 불신자가 예수를 영  
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과거 북한의 성도들을 돕는일(역할1)  
이 전부라 생각했던 기존의 인식에서 탈피하  
여 북한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으로 연  
약해져가는 남한성도를 돕기(역할2)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매년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를 발표해오고 있다. 기독  
교 박해지수발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기위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것(간증과 이야기들)을 자유세계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유세계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핵  
심이기도 하다. 굳이 순위를 매기는 것 또한 성  
도들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각고(刻苦)의 노력  
이다.

이러한 성도들의 소식을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할 때 우리는 박해받  
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선물 -모  
델, 경고, 격려- 를 온전히 얻을 수 있을 것이  
다. 

# 분단 후 북한교회의 박해와 실상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책임

김영길 목사 (북한크리스천 살리기 운동 NKCL(North Korean Christian Life) 대표)

## 1. 북한교회의 핍박과 실상

2003년은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유민들에게  
잔인하고 비참한 박해가 시작된 한 해이며 북  
한의 기독교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기 시  
작된 해이기도 하다.

### 1) 북한과 북한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 저 죄와 어둠의 땅에 내린 대 재앙으  
로 말미암아 죽음의 식량사태로 내몰린 북한  
의 백성들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며 변방 중  
국 땅에서 머물며 불안하게 생존하였는데 저  
불쌍한 생명들을 왜 다시 그 핍박과 우상의 땅  
으로 잡아가는 것입니까?

북한의 대 재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쇼  
비에트 연방의 해체 시기인 1980년 말부터 시  
작되어 300만이 굶어서 죽는 비참한 식량 사  
태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철웅성 같은 동토



〈2002년 5월, 중국 선양 일본총영사관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탈북자들의 모습. 탈북자들의 외교공관을 통한 탈북이 이어지면  
서 중국과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에 적극적으로 나서  
게 된다.〉

의 벽이 무너지고 중국으로 유입되었던 탈북  
유민<sup>1</sup> 들이 다시 북으로 강제 압송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실 1990년 초기부터 2003년경까지 중국

1 이 글에서 탈북자에 대한 용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  
한다. ① 도강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식량을 구해 돌아  
가는 사람들, ② 탈북유민: 탈북 이후 중국에 체류하던 사람  
들, ③ 탈북자: 탈북 이후 제3세계로 탈출한 사람들



에서 체류하던 탈북유민의 숫자는 매 해마다 30만 명을 넘나들었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조선족교회와 심지어 한족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시기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6개 시, 현의 삼자교회에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주 정부가 있는 연결지에는 북한 탈북유민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을 정도였다.

이러하던 2003년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외교 공관을 통한 탈북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인권문제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자 중국의 공안과 북한의 보위부가 합동하여 탈북유민들을 강제 압송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를 한국의 기독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강제압송 되어간 사람들 중에 30만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1999년부터 영국의 시민권자로 국제난민기구(Mercy Corp International)의 파트너로 두만강 유역의 조선족교회를 상대로 북한의 도강자들에게 식량(Survival Kit)과 함께 성경을 전달하며 전도와 세례를 통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셨다면 저도 이제 북한선교사역을 접고 영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심지어 철사 줄에 손과 귀가 꿰어서

강제 압송되던 사태에서, 그렇게 끌려간 대부분은 강력한 반동분자로 분류된 크리스천들이었다. 이를 묵도하면서 비통하게 기도하던 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내가 저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 북한 땅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다! 저 땅 북한은 내 백성들이 핍박받는 거룩한 땅이다!”

## 2) 북한 교회의 3대 박해

1945년부터 북한의 교회는 남한 교회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되었다.

북한은 참혹한 박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밥에 고깃국도 못 먹는 나라로 전락하였으며, 남한은 세계교회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큰 복음의 은혜와 부흥과 경제 발전의 축복을 받았다.

### (1) 김일성 시대(1945-1994년): 북한교회의 멸절

북한은 김일성이 집권하면서 남과 북의 분단이 고착되었으며 1950년의 6·25민족 동란을 전후해서 36년간의 일제시대도 없애지 못했던 한 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북한의 그 왕성했던 교회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김일성은 기독교의 사상이 북한 사회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북한 통치의 정치노선을 명확히 천명하였으며 반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교회 철거, 기독교 지도자의 순



교와 강제 노동을 거치면서 북한의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사라져갔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3세대 연좌제로 묶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고 태어난 생명들을 사상범의 특별감시 구역에 가두어 교육의 일반적 혜택은 물론 기본 인권까지 유린하며 믿음을 뿌리까지 제거하도록 했었다.

더불어서 남한교회마저도 1980년도 경부터 그렇게 뜨겁게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던 열기가 식어져갔으며 드디어는 과연 북한에도 교회와 성도가 존립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할 때 북한 땅에 재난(홍수와 기근)의 대재앙이 내리며 김일성이 사망하게 된다, 김일성이 사망하던 1990년 초에 그나마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는 인민에 대한 정책이 수령 우상화의 주체사상 통치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두고 주목해 볼 내용이다.

### (2) 김정일 시대(1994-2011년): 새로운 북한교회 출생

필자는 1999년 두만강 유역의 조선족교회에서 북한 도강자들을 만나면서 “아!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북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응답의 확신으로 사역을 사역하였는데 차츰 “믿음과 교회를 지키다 순교를 당한 북한 성도의 피를 바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저 철옹성 같은 독재우상의 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깨달음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0년 초부터 2000년 초까지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살라는 자립갱생은 300만 명이 굶어서 죽던 참혹한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나들며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며 살려고 넘어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당시 중국의 동북3성에 투입된 한국선교사가 3천명에 육박한다고 전한다) 그 식량과 함께 복음이 다시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와 오픈도어즈(Open Doors)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30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 중 6-11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중대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추방되었거나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골짜기 그 처참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필자는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있으며 인권유린의 사각지대 가운데서 인

2 1998년부터 국제난민기구인 Mercy Corp에서 연변자치주의 조선족교회를 식량배급처소로 사용하였다.

간이하의 차별과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sup>3</sup>

### (3) 김정은 시대(2011-현재): 새로운 핍박과 한국교회의 침묵

북한에서도 하늘종교인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그 형벌을 낮추거나 석방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그래도 김정일 시대는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하면서 큰 틀에서 시장개방과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방문을 허가함으로써 북한 성도들이 오가며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려있었고 북한 내의 가정교회도 감시를 피해가며 예배를 드리거나 숨어서 성경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고 보위부 정치를 하면서 군과 당, 정부와 인민까지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숙청<sup>4</sup>이 일어났고 김정일 시대에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발되어 더 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다시 순교의 피가 북한 땅을 적시고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성도들과 옥에 갇힌 크리스천들은 김정일 시대에 태어나서 그 아들 시대에 더 참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곤 북한과의 관계를 정치나 이념으로 해석하면서 다수의 한국교회가 방관하거나 침묵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는 복음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순교의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지켜온 초대교회 선배들과 부흥 발전했다고 자랑하는 세계의 교회 앞에서 심한 수치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북한교회의 고난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 2. 북한교회의 고난과 부흥 발전한 한국교회 책임.

선교의 주체는 예수그리스도이시다.

북한선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주체적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77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핍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77년의 실상을 간과하고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1)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국가관의 준비.

북한은 한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백두혈통 주체사상의 김일성을 우상화 한 전재국가다.

그리고 백성들은 1945년 민족의 분단 이후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권의 자유와 종교의 의지조차 빼앗기고 마치 강도를 만난 사

람처럼 포로가 되어 노예처럼 살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볼 때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정치나 이념의 관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성경적 시각은 스스로 태양신이 되어 절대적 숭배를 받으며 죽어서도 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절대 숭배의 대상으로 신적 존재가 된 우상과, 그 혈통을 이어서 광명신(김정일 생일이 광명절이다)이 된 김정일과 3대의 더 사특한 핍박자 김정은과, 그 속박과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백성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 2) 북한교회의 고난에 대한 이해

“북한교회와 성도가 77년 동안 고난당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복음 통일을 바라보는 역할의 시작이 될 줄로 믿는다.

남과 북은 한 민족이며 한 나라였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한 노회요 한 총회였다,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한 몸이요 그 몸의 지체이다(고전12:15-26절). 만약에 한 지체가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지체에 그 고통이 전달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몸은 마비되었거나 이미 죽어있는 상태와 같다고 하겠으며 이는 모든 이해를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성경적 국가관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공의와 정

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남과 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족적 혈통에서나 또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출생했기 때문이다.

## 3) 북한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은 기도이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북한은 다시 막히고 단절되었으며 그 핍박은 마지막을 향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30만 성도와 옥중의 생명을 내맡긴 10만 성도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북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마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북한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1980년도까지 발전하고 부흥하였음을 상기하고 다시금 무릎을 꿇고 자성하며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한다. 필자가 두만강 식량배급처소에서 만났던 북한 소녀(당시 고1학년)의 기도를 한국교회에 보내며 기도 할 수 있기를 전한다.

*북한소녀/성도의 기도.(필자의 저서 중에서)*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들리면 나와 우리 가족은 모두 죽습니다.*

3 필자의 저서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영길, (2020), 이제 그만 우월 구해주시라요!, 경북:에젤.

4 대표적 사례로는 고모부 장성택 숙청과 이복 형 김정남의 살해 등이 있다.

하나. 굶주림에서 해방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빠지고 학생들도 과반이 식량 구하러 가고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회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기에 한국교회에 대하여 그 같이 말하느냐는 물음에 그 소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두(북한성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필자는 40대에서 60대가 되기까지 20년 이상의 황금 같은 시기를 북한 선교를 위해 바쳤지만 나 역시도 “북한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한국교회의 책임”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저들 고난 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요 믿음 안에서 한 지체임을 알고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모두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며 저 북한 교회의 77년 고난당한 의미와 정금 같은 순교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미래의 복음통일의 나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선교한국으로 쓰실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 마치는 글

필자의 저서 “이제 그만 우릴 구해주시라

요!”에서 소개한 북한 성도의 이야기 몇가지를 나누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연변의 한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준 30대 후반의 명희 자매는 딸 하나를 둔 엄마였다. 소개받을 당시 그녀는 2년 전 세례를 받고 북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을 도우며 전도하고 있었다. 명희 자매는 만남 이후에도 북한 내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으나 북한 보위부에 의해 예수 믿고 전도하던 것이 발각되어 검거되고 말았다. 일주일간 변방부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송하는 군용트럭에서 탈출하려고 뛰어내렸지만 그만 척추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온 몸에 성한 곳이 없고 내상까지 입어 살 가망이 없어보이자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도와줄 길이 막막한 가운데 힘써 기도하였지만 명희 자매는 사상범으로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주님 곁으로 떠나고 말았다.

명희 자매가 살던 함경북도 무산은 2002년 어느 성도가 성경을 보급하다가 반역죄로 총살당하고 일가족 10여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여서 필자는 순교자의 고장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자매는 약사이신데 돈을 벌겠다고 강을 건너 막내 딸을 찾아 본인도 도강하였다. 교회에 탈북자들이 많이 다니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아직까지 딸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함경북도 무산시의 모습. 뒤에 노천철광산의 모습이 보인다.〉

이 여성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과 태도가 매우 간절해, 사람으로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고 위로했다. 찬송을 부르니 어릴 때 외할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부르던 노래와 비슷하다고 한다. 자기를 안고 자주 뒤편 중얼거리시며 자장가처럼 불러 주셨던 기억이 난다 하셨다. 이분의 할머니는 숨은 신자셨던 것이다. 이분은 처소 교회에서 3주 정도 성경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북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던 중 2018년 여름, 9년 만에 그녀가 교회를 찾아왔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 말기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비밀리에 가정 예배나 기도회고 할 수 있었고 친인척에게 전도할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통치하면서 워낙 보위부의 감찰정치가 위중해져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밤새 이웃사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풍조도 더욱 만연해졌다고 한다.

자신도 믿는 것이 들키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전도 받은 사람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면서, 본인의 두 딸에게도 믿음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지었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 시대 북한의 현실이다.

“저 땅은 내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거룩한 땅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땅이요 회복해야 할 땅이요 미래의 한국임을 믿는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 받은 북한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면 과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런 영성을 가진 한국교회가 되어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의 태동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이다.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복음시대의 문을 열어왔다.

“우리 한국교회가 77년의 그 오랜 시간의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는, 피로 찢어지고 상처로 나누어진 북한의 지체를 주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가슴으로 품고, 받은 축복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복음통일의 재단에 바쳐지기를 기원한다!”



# 김정은 집권기 북한 기독교 양상과 박해 현황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감시기구 본부장)

## 1. 개괄

북한 기독교 박해는 해방 후 북한 당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의 순교를 낳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이다. 이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며 유배의 형태로 함경도의 산골지방으로 추방당하는 형태를 띠었다.

북한 당국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종교를 사 람들을 지배하는 자연 및 사회의 힘이 사람들 의 머릿속에 그릇되게 환상적으로 반영된 의 식형태라고 규정(철학사전, 1970)하며 종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있 다.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입장은 북한 주 민의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신념과 표현의 자 유’를 위해하여 국제 사회의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낡은 사회의 사회 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 하며 허 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 할 것을 설교(현대조선말사전, 1982)하는 것 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 한 적대적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강도 가 거세지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3대 세습을 거쳐 우상화의 수준에 있 어 비교적 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경우, 내부적 위신의 약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 를 과제로 안고 있는 동시에 외부 정보 유입이 라는 거센 물결을 맞닥뜨리고 있다. 북한 당국 은 최근 여러 차례 청년층이 외부 사상에 물들 지 않도록 사상교육을 강조해오고 있는데, 대 표적으로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외부 사상의 유입에

대해 위협적 인식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 체제의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축 인 사상적 교양의 측면에서 외부 정보를 선호 하는 청년들 사이에 다른 사상이 전파되고, 이 것이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발현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2018년에 발표된 당 내부의 법률적 해설을 살 펴보면, 북한의 헌법과 형법을 10대 강령과 주 체사상의 틀 안에서 해석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는데, 사상이념의 강화만이 체제 유지의 핵 심이 된다고 믿는 북한 당국의 통치 방식은 여 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형법 해설서에서는 “종교를 이용해 외세를 끌어들여 공화국의 사회 질서를 방해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교를 가지 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서 ‘종교 유입’에 ‘체제 위협’의 의도를 전제하 여 억제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 사회가 외부 매체와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폭넓은 의 미로 기독교 등 종교적 사상을 접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환인 것이다.

## 2. 북한 기독교 활동의 유형과 사회적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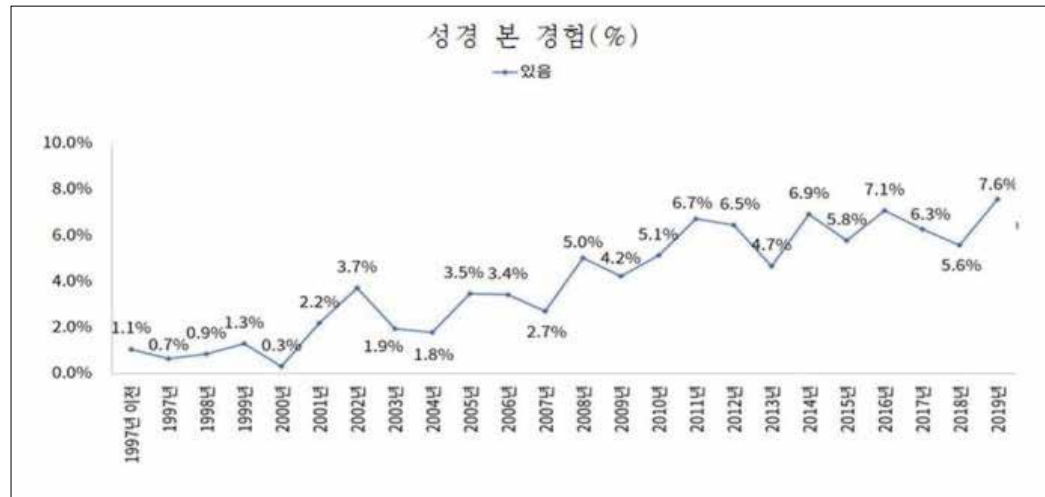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간한 2020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의 자유 수준 을 측정한 결과, 2007년부터 2020년 2월 기준,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란 질문에 14,052명 중 13,993명(99.6%)가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 내에서 기독교적 사 상을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위협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가능한 가장 적극적 행위 로는 지하 종교 모임에 참여하거나, 비밀 종교 모임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적발 될 시 북한에서 최고형 수준의 처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사 대상자 14,052명 중 단 1.2%에 해당하는 168명의 응답자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 고 있다. 이중 159명이 2001년 이후 북한 지역 에서 탈북하였으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비밀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북한에서 종교 행위로 인한 처벌의 심각성 은 매우 큰데, 이것이 비단 개인에게 가해지는 처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개 처형을 통해 시범적 성격으로 종교에 대한 처 별 수준을 노출시키며 주민들을 억제하는 것, 또한 정치범으로 규정하여 정치범수용소에 가 두고 가족들은 연좌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정치범으로의 규정은 곧 북 한에서 종교를 접하고 이를 전파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을 적대 계급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북한에 있을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경을 접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처형 목적과 마찬가지로 일가족의 몰락을 접한 결과, 북한 주민들에게 극도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당국의 단속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북한 주민들의 종교 활동은 이로 인해 대부분 적극적,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의 종교에 대한 전파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종교와 관련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관계자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비밀스럽게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종교적 물품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공식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나오거나, 탈북자를 포함하여 중국으로 와서 북한으로 귀환할 경우에도 관련된 물품과 북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금과 경제적 물

품을 지원하여 비밀리에 들여보내고 있다. 두만강과 압록강을 비밀스럽게 넘나드는 북한 주민들의 보따리 속에도 성경책을 넣어 들여보내기도 하고, 밀수품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 내부의 사회적 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주체사상과 다른 신념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큰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575명)으로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접촉면 또한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소규모로 전달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유입이 ‘정보가 제한된’ 북한 땅에 도래했을 때 그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데 김정은 집권기 이후 북한 당국이 종교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며 처벌로

제어하고 있는데, 문제는 종교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매우 넓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외부 영상물 보유, 소비, 유통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고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외부로부터 반입된 일체의 종교 물품을 소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구금,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선교사의 입국과 활동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거주 외국인의 종교활동도 당국이 설립한 평양의 교회와 성당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3. 북한 기독교 박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북한 당국은 정치 체제와 지도부에게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종교 활동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은 노동단련형이 13,707명 중 417명(3.0%), 교화소는 1,467(1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치범수용소 행은 무려 6,408명(46.7%)으로 북한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받고 있었다. 특히, 많은 정치범들이 최악의

여건 하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구금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적 행위는 범죄의 실체가 규명되기도 전인 조사 단계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구류장 내에서 수감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조사 중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해지는 고문과 폭행의 정도는 매우 끔찍하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내부 규율을 세운다는 이유로 고문과 구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수감자들의 정신 교양을 목적으로 집결소, 단련대 등 시설 내에서 강제 노역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구금시설의 관리자들이 종교자들을 향해 행하는 무차별적 가해 행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주체 사상에 기반을 둔 조직적 감시 구조는 매우 촘촘하게 짜여져 운영되고 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은 단일한 규칙을 적용 받으며, 이를 수호하는 기관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관리 하에 놓인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선전선동부와 같은 조직적 관리는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교육하며 최고지도자를 향한 충성심을 주입하고 있다. 소속된 직장, 학교, 모든 일반 주민들이 속한 지구 안



〈북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옥 씨가 체포될 당시 소지한 성경책과 카메라, 서류 등.〉


에 존재하는 조직적 보고 구조를 통해 이념적 일탈을 적발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 활동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종교는 곧 아편이라는 신념을 심으며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종교’를 적대적으로 볼 것이 강요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종교가 나쁜 것임을 사상교육 시키는 세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중 일부가 종교를 접하며 심각한 인권피해의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강압적으로 세뇌하는 북한 당국의 사상 교육은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이동의 제한과 더불어 외부 정보를 접촉하는 것에 제약받는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 가서야 종교를 접하게 되고 북한에서 알고 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 4. 결론

북한의 인권침해 양상은 북한 김정은 일가의 통치 역사가 지속될수록 강화되고 유지되며, 반복되고 있다. 제76회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는 더욱 제한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 내용은 새롭게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혹은 북한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온 일부 목격자들로 인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발견되는 새로운 정보들이 축적되어 북한 사회에 대한 구조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들을 통제하는데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 북 민 인 터 뷰

## 기독교 박해 증언: 황해남도 연안군 창덕리 지하교회당 사건

편집부

필자는 한국에서 ‘이철은 뼈빠용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자 이철은 씨를 만났다. 이 씨는 2016년 9월 바다를 헤엄쳐 20시간 가까운 사투 끝에 남쪽으로 탈출했다. 이러한 탈북의 여정도 대단하지만 이 씨의 배경도 특별하다. 북한에서 이 씨는 황해남도 청단군 보위부 2과(정보과) 상위로서 ‘불순녹화물’ 단속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109상무’라는 조직에 소속돼 한국 영상 시청자들을 적발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외부 미디어도 있지만 주로 한국 미디어가 단속 대상이었다. 이 씨는 단속하면서 종교 관련 물품을 잡아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국군 포로 출신의 집에 십자가를 달아 놓은 것을 적발한 적은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옛날 신문을 오린 것 같은 이승만 대통령 사진과 태극기도 함께 발각되었다고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십자가가 허용되지 않고 십자가 관련 물품을 소

지하거나 개시할 경우 국가 전복 음모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십자가는 악인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선교사의 탈을 쓰고 사람의 간을 뽑아 팔아먹는 악독한 도둑놈의 트레이드 마크는 어김없이 십자가다. 이 씨의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스토리는 이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이 씨를 만나게 된 것은 이 씨의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 박해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참여한 사건은 아니지만 보위부 간부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철은 씨의 탈북 루트 (사진=동아일보)〉



이 씨는 어느 날 사건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보위부 기요실(기밀실)에서 사건 파일을 뒤적이다가 “창덕지하교회당 사건”이라는 제목의 사건파일을 발견했다. 기요실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 비밀 문서였다. 독특한 사건이다 싶어 꺼내어 살펴보았다. 상당한 분량의 사건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북한에서 지칭하는 지하교회당은 한국에서 보는 교회 건물 같은 것은 아니다. 김씨 일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불순한 기독교인의 모임을 지하교회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 씨는 사건 파일을 찬찬히 살펴보았고 연안군 창덕리에서 지하교회 소탕 작전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선교회에서는 이 씨와 만나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본다.

이 사건은 보위부의 정보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정보원은 보위부 현역 간부는 아니지만 당성이 투철하고 특별히 선발되어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인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 주민들과 다를 바 없다. 탈북자들 중에서는 보위부에게 정보를 준 적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정보원이었다고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하지만 실제 정보원은 단순 정보제공자가 아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다. 보위부 간부는 보통 수 명의 정보원을 관리한다. 정보원 교육은 보통 1년에 1~2번 실시하는데 보위부의 아지트에서 진행되었다. 아지트는 시범집 않게 생긴 가건물 같은 곳으로 겉으로 보기엔 허름한 창고 같은 느낌이지만 기실 그 안에는 각종 교육자료와 비디오 녹화물 등이 쌓여 있다. 교육은 1명씩만 참석하고 보

통 2박 3일로 진행한다. 정보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정보원 중에서도 이상한 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원들이 수상한 인원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원을 고발하는 일도 있다. 만약 정보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그 정보원은 그동안의 일에 대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정보원 일을 그만두게 된다.

어떤 이들은 북한에 왜 미안마 사태 같은 민중들의 움직임이 없느냐고 질문한다. 그 사람들은 북한의 감시 체제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감시체계는 중국이나 구 소련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사람들이 국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북한은 자국 내에서도 이동이 통제된다. 감시도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고, 지정된 정보원들도 있으며, 또 보위부 외에도 보안성(경찰조직)이나 당에서도 감시, 통제한다. 주민들을 감시하는 부서들끼리도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한다. 중앙까지 범위를 넓히면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견제도 치열하다. 어느 특정 조직의 간부가 신임을 얻는다고 하면 다른 조직에서는 큰 건수 하나 잡아야겠다 마음먹고 비리나 의혹을 찾아내어 제의서를 올리는 식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밝혀내라는 지도자의 지시를 받게 되고 지시에 따라 상대 조직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사방에서 상호 감시가 일상인 곳이다.

사건 기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정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당원의 집을 우연히 방문했다. 북한은 집 구조가 단출하고 대부분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아는 사이인 경우 남의 집이지만

거리낌 없이 문을 열고 들락날락 하기도 한다. 때는 겨울이었고 성탄절 즈음이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던 정보원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바닥에 내려져있고 십자가

모양의 무언가가 벽에 걸려있었던 것이 찰나의 순간 그 정보원의 눈에 들어온 것이다. 초상화가 내려져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청소하기 위해 내려서 닦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그 집주인은 황급히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둘러대며 그 사람을 내보냈다. 정보원은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 그 사실을 자신이 연결되어 있는 보위원에게 보고했다.

정보원은 보위원에게 보고할 때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보원이 보위원을 만나는 장면이 사람들의 눈에 띄면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은 손편지를 써서 약속장소에 놓고 가고, 나중에 보위원이 가져가는 식으로 전달한다. 이런 활동은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이철은 씨는 지금도 새벽 2시나 넘어야 잠에 든다고 한다. 밤 늦게까지 활동하던 보위원 시절의 습관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보위부로 보고된 이 사건에 대해 담당 보위원은 당원의 집인데 그럴 리가 있겠냐며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기독교 관련 사안은 중대한 이슈인 만큼 창덕리 보위원이 상급기관인 연안군 보위부 정치부장에게 보고했고, 일단 사실을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황해남도 연안군 지도(왼쪽, 네모 지역이 창덕리)와 강화도 교동도에서 바라본 연안군의 모습〉

이렇게 시작된 본 사건의 수사는 최초 보고 당시인 2007년에서부터 6년의 시간 걸렸다. 일단 사실확인을 위해서 정보원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하교회 조직에 교인으로 침투시켜야 했다. 그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해당 정보원을 지하교회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당원과 깊은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너무 갑자기 수사 대상인 당원을 자주 찾아가고 접촉하면 역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정보원은 평소라면 년에 1~2회 받던 담당 보위원의 교육, 지도를 매달 받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비록 지하교회가 신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가지는 많은 테스트와 점검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원은 성공적으로 침투해서 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지하교회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확인되고 만 것이다.

이제 지하교회의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범죄자들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지하교회 조직의 뿌리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지하교회는 여러 지역에 성도

들이 있었고, 소속 성도들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다. 모임도 비밀리에, 그것도 어쩌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겨우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지하교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계속된 조사 끝에 평양, 남포, 사리원, 개성 등 각지에 교인들이 있고 그 숫자가 20~30명 정도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 사이 해당 사건은 중앙정부가 특별히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 사건 수사 기간 동안 발각된 지하교회를 하루속히 뿌리뽑으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여러 차례 내려왔다. 수사가 길어져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는 김정은의 명의로 관련 지시가 계속 내려왔다. 우리 공화국에 아직까지 이런 종자들이 있다는 것은 용서 못할 일이라는 강한 언급과 함께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수 년간의 오랜 수사 끝에 결국 이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이 시행되었다. 침투한 정보원을 통해 이들이 12월 25일, 즉 성탄절을 기점으로 모임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날짜에 맞춰 주변 지역을 포위했고 마침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체포했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단지 하룻밤 사이에 사람 몇이 사라졌을 뿐이다.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그 교회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최초로 덜미를 잡힌 당원은 그 교회의 리더였다. 리더의 아버지 고향이 바로 창덕리가 위치한 연안군이었다. 이 지역은 과거 기독교 배경이 상당한 곳이었다. 해방 당시 성결교와 감리교 교회들이 있었다. 지금 연안군 학생소년회관 자리는 과거에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게다가 연안군은 해방을 맞이할 당시에는 남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고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면서 북한 지역이 되었다. 조상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던 그 리더의 집안은 살기 위해 경력을 위조(세탁)을 해서 충성분자로 위장했다. 전쟁 직후 50년대 신분세탁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 때는 서류라는 것이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가의 경찰이나 치안조직도 별볼일 없었으니 작성하는 사람에게 적당히 뇌물을 고이거나 하면서 잘 써주소 부탁하고 겉으로는 열성분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리더의 가족은 성공적으로 신분이 잘 세탁되어서 오히려 높은 성분을 받았고, 그 리더도 평양에서 대학을 다녔다. 그렇게 평양에서 공부하던 그는 아주 끈끈한 관계로 이어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마 “너 이런거 있는 거 아냐?” 하는 식으로 호기심을 일으키면서 전도를 한 것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나 둘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 한 명이 두 명 되고 하는 식으로 오랜 세월 걸쳐서 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창덕으로 돌아왔다. 평양에서 공부를 했으니 높은 지위의 당원으로 출세하기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고향으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에서 그는 경제적으로는 그리 넉넉치 않았지만 뒤로는 지하교회를 운영했다. 잘 살고 배부르면서 그런 다른 뜻을 품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교회의 운영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모임도

정해진 주기 없이 매번 달랐고, 교인들 사이의 연락도 전화나 편지가 아닌 사람이 직접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신앙심으로 조직된 모임이다 보니 성탄절과 같은 기독교의 의미 있는 명절에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모임도 가지고 싶었던 것 같다. 최초로 의심을 받게 된 시기도 성탄절 어간이었고, 모임을 가지다가 소탕작전을 당한 것도 성탄절 날이었다.

이렇게 교인들은 체포됐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성도들의 가택 수색했는데 달려와 성경책이 발견되었다. 이런 물품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이 이후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죄인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이 물건들은 주로 중국 국경을 통해 들여왔고 일부 성경은 남한에서 풍선을 통해 날린 전단지와 함께 들어있던 것을 주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남한에서 보낸 풍선과 보내진 물품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고 큰 처벌을 받지만, 과거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느정도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증거물로 압류된 성경책의 숫자는 교인 1명당 1권도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수량이었다.

문제는 물품을 받은 리더도 누가 그 물건의 정확한 출처와 제공자를 모른다는 점이었다. 물건을 받는 방식 자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달받거나 정해진 운송 경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정 장소에 몇일 날 와서 받아가라 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받으면, 정해진 시간에 해당 장소로 가서 놓인 돈과 물품을 수령하는, 즉 전달자를 알 수 없는 방식이었다. 보위부에서는 그 돈과 성경을 보내는 사람 또는 조직을 잡으

려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물건이 전달되는 장소 주변을 포위했다. 그렇지만 전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미결로 남게 되었다.

붙잡힌 교인들은 반역죄로 극심한 처벌을 받았다. 주범 7명은 처형되었고 열댓 명은 정치범 수용소 보내졌다. 요즘에는 교인들을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다.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죄명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인데,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주민들이 공개 처형을 통해 괜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의도치 않은 종교 선전이 될 것을 주의하여 조용히 처형한다. 그 외 인원들과 죄인의 가족들은 대부분 추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붙잡힌 사람의 가족들도 강도높은 조사를 받는데, 보통은 가족들은 범죄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다. 그러면 범죄자의 아내는 붙잡힌 남편과 이혼을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처리가 되면 정치범 수용소로는 끌려가지 않고 외지 추방 정도로 처벌을 낮출 수 있다. 딸도 보통은 어머니와 같이 추방을 당한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로 같이 끌려간다.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온 혈통과 핏줄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70~80여명이 추방을 당했다. 이러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재판은 당연히 실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위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 별도 재판 없이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 처벌이 이루어진다. 사법부보다도

보위부가 더 권위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보위부 내에 특별 재판소를 운영하는지는 하지만 비상설기구이고 그 내용도 보위부 간부들이 조사된 내용 보고 알아서 죄를 정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소라고는 할 수 없는 곳이다.

해당 사건은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진 중요한 사건이었다. 담당 보위원은 영웅 칭호 받고 지역 보위부에서 중앙 부서로 진급되었다. 다른 수사 참여자들도 진급되고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창덕군의 지역 주민은 이러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아는 전부는 하룻밤 사이에 한 가족이 없어진 것뿐이다. 당연히 아무런 소문도 퍼지지 않는다. 심지어 보위부 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철은 씨는 바로 옆 군에서 근무하는, 그것도 일반 주민도 아닌 보위부원이었지만 사건 파일을 보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 파일도 절대 비밀로 취급되어 보위부 기요실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였다. 조사 문건은 주로 수기로 작성된다. 내용의 절반은 손으로 그 범죄자가 자필로 쓴 내용이고, 보위원도 별도로 조사 내용을 쓴다. 그리고 두 내용이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묶여 있다. 타이핑으로 인쇄된 부분은 사건 앞에 개요뿐이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오히려 기독교 박해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철은 씨는 최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단속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런 내용을 법제화하

고 공포한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간 여러 검열 및 단속 조직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외부 문화, 특히 남한 문화 접촉을 통제하려고 했다. 이 씨가 탈북한 이후, 이 씨가 속해있던 109 상무 외에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한류 단속을 위한 64상무가 추가로 조직되기도 했다. 그렇게 많은 단속 기구들을 설립했지만 외부세계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속에는 기독교 관련 물품, 특히 성경이 중요한 대상 중 하나이다. 이 씨에 따르면 이씨가 북에 있을 당시에도 성경을 보거나 유포하면 15년 교화형 이상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탈북자 중에도 성경을 봤다는 이유로 그렇게 수감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15년 교화형은 기간이 정해진 형벌 중 최고형이며, 그 이상은 무기형이나 사형뿐이다.<sup>1</sup> 게다가 북한의 열악한 수감시설의 환경을 생각할 때, 15년 형을 다 마치고 살아 나오기란 매우 어렵다. 보위원들이 보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자료 중에도 종종 성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 자료들은 보위부 내에서만 교육자료로 사용되는데 한국에서 선교단체가 성경을 보내서 중국을 통해 북한에 퍼트리기 위해 악랄한 음모를 꾸민다는 내용, 또 성경에 매수당하고 돈에 매수당해 스파이 짓을 했다는 사례도 소개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2장 2절 30조 참조. 링크: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독교나 성경에 대해 가급적 언급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법에도 이러한 성경책과 관련된 형벌이 기록되어 있다. 비록 법 안에 “성경”이라고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처벌 대상인 해외에서 출판된 이적 출판물 항목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해외 출판물 소지는 5년에서 10년 형을,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배포할 시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 북한 형법에는 도서나 물품 소지 및 보관은 기본 1년 이하, 횡수가 많을 경우 5년 이하,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교화형으로 규정해 왔다.<sup>2</sup> 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르면 기본 형기가 5년 이상으로 두 단계 상향되는 등 처벌이 매우 강화된 것이다. 성경의 경우 법 제정 전부터 이미 다른 일반 외국 도서에 비해 더욱 위험한 반체제 물품으로 취급받으며 극심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법 안에서도 15년 형 이상의 무기형이나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동사상문화법의 재정을 통해 우리는 북한 내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력, 즉 한류나 기독교 등이 상당히 퍼져 있고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법의 제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지하교회 사건의 상당수는 우리에게까지 알려지지 않는다. 북한 내에서도, 심지어 같은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장 전체, 도서나 물품 관련 처벌의 경우 형법 183-185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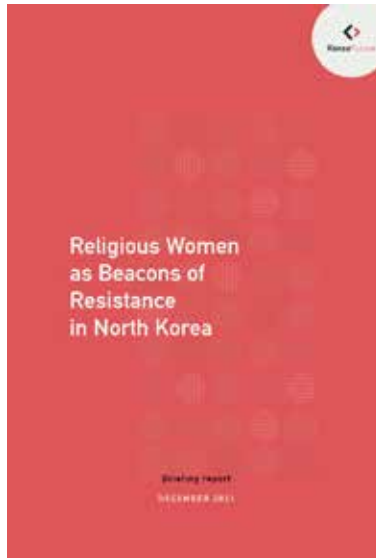
<북한기독교총연합회에서 2020년 3월에 공개한 황해북도 안전보위부 반간첩투쟁전람관 제작 추정 반종교교육 영상의 한 장면. 해당 영상에서는 기독교를 “당과 혁명을 파괴하는 반혁명적 사상독소”로 규정하고 “종교교리를 선전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비방 중상하는 자들은 주체사상의 존엄을 결코 된(강력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도 지하교회의 존재와 박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북한의 지하교회 박해 사례를, 그것도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단속과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의 기록을 알 수 있었기에 이번 인터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세상에서는 이 사건을 그저 북한이 저지르는 많은 악행 중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당한 심각한 고난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미루어 볼 때 북한 내 지하교회들이 당한 어려움은 전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의 고난 받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북한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박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지하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 영국 NGO 한미래(Korea Future), 북한의 종교박해 관련 보고서 잇달아 발표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한미래)'가 12월 14일 북한 내 종교적 소수자들이 경험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16일에는 '저항의 등불인 북한 여성 종교인'(Religious Women as Beacons of Resistance in North Korea)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미래 발간 북한 여성 종교인 박해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가한 517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등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94건이 고문에 관한 기록이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특별히 종교와 신앙을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북한 여성 331명의 사례를 확인했다. 331명 가운데 151명은 기독교인으로, 이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임의적 자유박탈 140건과 강제노동 5건, 고문 33건, 성폭력 1건, 강제송환 11건 등이었다. 나머지 180명은 무속신앙을 믿는 북한여성으로 이들이 경험한 침해 내용은 임의적 자유박탈 157건과 강

제노동 53건, 고문 26건, 성폭력 1건 등이다.

강혜주(Hae Ju Kang) 코리아퓨처 공동국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설명회에서 북한의 여성 종교인들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신앙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가 아닌 '저항의 요원'으로 북한 당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북

한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성차별과 박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은 신앙을 가진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가 인권침해와 국제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개인과 국가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12.26일〉

## + 북한, 김정일 10주기 추모대회...김정은 우상화도 이어져



〈김정일 10주기 추모대회의 모습〉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5년 만에 중앙추모대회를 열어 선대 수령을 칭송하며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추모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서 진행됐다.

그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던 김여정 당 부부장이 주석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옆에 있는 모습도 화면에 포착됐다. 김여정 부부장의 활동이 공개된 것은 지난 10월 12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 보도(실제 행사는 10월 11일) 이후 66일만이다.

본 추모대회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장군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김정은 동지의 발자취가 새겨주는 모든 곳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뵈옵고 김정은 동지께서 일떠 세워주시는 경의적인 창조물들마다에서 장군님의 소원이 풀리는 격동

적인 현실을 체험했다"고 언급하며 김정은을 추켜 세우기도 했다.

앞서 정오에 울린 사이렌에 따라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이 일제히 묵념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되는 등 북한은 종일 추모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편 북한 언론은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두산'에 비유하고 이전까지 갖지 못한 강력한 국방력을 과시하게 됐다고 추켜세웠다.

노동신문은 12월 14일 정론 제1편 '장군님과 함께 온 승리의 길'을 시작으로 '김정은 우상화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지난 20일과 22일에는 각각 제2편 '새 시대의 탄생'과 제3편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을 내보내며 김 위원장 집권기의 성과를 강조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12월 24일 정론 제4편 '새 여정의 승리를 앞당기자'에서는 "우리의 10년은 백두산의 10년이었다", "김정은 장군의 백두산이었다"라며 '김정은=백두산'이라는 우상화 주장을 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주로 쓰이던 표현을 동원해 김 위원장을 "만고절세의 애국자", "오늘의 빨치산 김대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12.17/12.24〉

##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김정은 집권 후 한국영상 관련 처형 늘어”



한국 내 인권 조사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2월 15

일 ‘김정은 시기

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17년과 19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1990년대부터 2019년 사이 한국에 입국한 683명의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적어도 27건의 공개처형이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 영상 시청 및 배포 혐의에 대한 처형은 7건, 마약 관련(5건)과 성매매 관련 혐의(5건)에 대한 처형은 10건이었다. 인신매매와 살인·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처형은 각각 4건과 3건, 음란행위 혐의에 대한 처형은 3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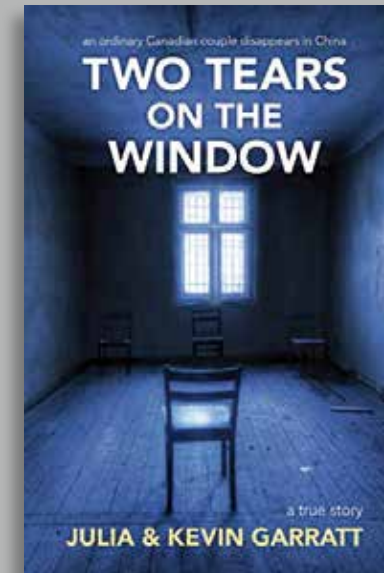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영상 시청 혐의에 대한 처형을 합법화했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형이 활성화 됐을 것”이라며 “영상 시청을 이유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의 주된 공개처형

방식은 총살로 조사됐다. 3명의 사격수가 총 9발을 발사해 처형하는 방식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공개 처형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술들이 있다면서도 비밀처형의 경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공개처형 보다는 비공개처형의 빈도를 늘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대중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개처형 방식을, 최고지도자나 체제 위협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형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혜산시의 공개처형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혜산 비행장, 그 주변의 언덕, 산비탈, 개활지 등이다. 공개처형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박아영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는 김정은 정권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하나 이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비밀처형, 실내처형 같은 비공개 처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RFA, 12월 15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Two tears on the window- An ordinary Canadian couple disappears in China.  
출판사: First Choice Books/Victoria Bindery  
발행일: 2018년 11월 27일  
가격: \$18.89 (USD)

\*원서 서평은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외국 도서 중 북한 선교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하여 내용을 소개합니다.

최근 수년간 언론의 국제면에는 미중갈등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 두나라의 갈등과 관련된 사건에 의외로 캐나다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된다. 2018년 명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직후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전직 외교관출신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이 간첩죄로 중국에서 체포되었다. 이들 중 마이클 스페이버는 지난해 간첩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중국의 이러한 간첩 누명 씌우기 스캔들은 미국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캐나다인에게 많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소환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은 캐나다인으로 서 30년간 중국선교와 북한선교에 헌신한 캐빈, 줄리아 가렛 부부이다.

명완저우 부회장 체포 이후 재중 캐나다인들의 간첩혐의 기소로 이들의 사건이 재조명되던 2018년 캐빈, 줄리아 부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부부의 성장과 결혼 젊은 시절 받은 중국선교의 소명 그리고 30년간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중국선교 후반부에 열심을 내었던 북한을 위한 복지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한 중국에서 그들의 선교사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게 만든 간첩조작사건과 그로인한 체포와 수감 재판의 이야기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줄리아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 10대 시절 꿈을 위해 기도하던 중 언젠가 중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 토론토대학에 재학 중이던 20대 초반 캐빈을 만나 둘은 연인이 되었고 불신자였던 캐빈은 줄리아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어 신앙이 성장한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후 곧 1984년 중국 창사에서 영어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이 책의 1-3장은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중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그린다. 이들은 중국에 정착하며 자녀들을 낳게 되고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과도 접촉한다. 그들이 만났던 지하교회 성도 중 문화대혁명시기를 감옥에서 보낸 우박사(Dr. Wu)와 그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 책의 4부에서 소개한다. 부부는 중국생활에 적응해가며 그들의 특기인 영어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다양한 사역을 시작한다. 학교에서의 교수사역, 영어유치원을 통한 선교사역, 고아원 사역등에 그들의 젊음을 바친다. 그들이 하이난에서 고아원사역을 하던 시절 장애로 다리를 쓸 수 없는 갓난아기를 입양하였다. 장애아에 대한 국제 입양과정의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입양에 성공하였고 그 아이는 대규모 수술과 부부의 정성어린 간호를 통해 회복되어 비장애인이 되었다. 이후 캐나다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가렛 가정의 일원으로 캐나다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중이다.

창사, 하이난, 광서, 북경 등 여러 곳에서의



〈캐빈 가렛 (Kevin Garratt) 선교사와 그가 운영했던 단동의 카페 Peter's Coffee House〉

사역을 통해 부부는 베테랑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 자녀들 또한 장성하여 독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부부가 잠시 캐나다로 돌아와 월드비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북한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 2007년 이들 부부는 캐나다의 한 교회와 함께 NGO를 설립하여 다시 중국의 단동에 정착한다. 단동에서 그들은 Peter's Coffee House라는 커피숍을 차리고 선교사로서 2막의 인생을 열어간다. 부부는 커피숍을 통하여 문화사역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국영기관과 함께 고아원의 겨울나기 프로젝트, 학생들 학용품 보내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하여 약품, 비타민, 두유지원프로젝트부터 김치보내기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였다. 30년차 베테랑선교사로서 단동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지역에서의 문화사역과 북한을 위한 지원사역을 통해 부부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지역의 중국인들과 선교사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Peter's Coffee

House는 단동지역에 거주하거나 단동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살아가는 북미출신 외국인으로서 부부는 북미유학을 준비하거나 영어를 공부하는 중국인들과 교류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부부는 여느 때와 같이 자녀의 캐나다 유학준비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중국인과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던 중 정체모를 괴한으로부터 납치를 당한다.

부부를 납치한 이들은 중국의 안전부(Chinese Ministry of State Security,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였고 그들이 구금된 곳은 단동시 외곽에 위치한 안전부의 안가였다. 그들은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립된 채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며 조사를 받았다. 3개월마다 한번 짧은 시간 주어지는 영사접견이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기회였다. 영사접견 또한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기회였다.

캐빈의 앞에 지난 10년간 그가 사용했던 모든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의 내용이 프린트되어 놓여졌다. 캐빈은 모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했고 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있던 십수 년 전의 사진들 또한 그들의 간첩혐의를 뒷받침 하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들이 구금된 곳은 정식 감옥이 아닌 안전부의 비밀안가였는데 그들은 24시간 밀착 감시 속에서 하루 6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했다. 부

부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소식을 아주 제한되게만 들을 수 있었다. 조사기간 부부의 육체와 영혼은 무너져갔으나 이들은 절망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들려 몸부림을 친다. 특히 줄리엣은 간수들에게 영어 이름을 붙여주고 간수들을 위한 영어공부 클래스를 여는 등 간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감옥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들로 최대한 방을 꾸미는 등 자기의 방법으로 감옥에서의 삶을 남다르게 살아보고 감옥생활의 의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이들은 30분간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막내아들과 부부 세명의 가족이 안전부가 지정한 방에서 성탄절 저녁을 함께하고 부부는 15분간 산책 할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그러나 꿈같은 저녁을 보낸 바로 다음날 12월 26일 줄리아와 캐빈은 각각 캐나다 정부와 정보기관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과 언론인들과 교류한 것과 중국의 민감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에 대한 사죄문을 작성하게 된다. 5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수사로 몸과 마음이 무너진 데다 전날 잠시 맛본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의 감정이 미묘하게 어우러져(캐빈의 표현에 따르면) 구슬림에 넘어간 5살 어린아이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사죄문을 작성한다. 마침내 기소이전 최대 구금기간인 6개월을 채우고서야 줄리아는 중국 돈 백만 위안(한화 1억8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



고 미결수 신분으로 석방되고 캐빈은 기소되어 단동의 일반 구치소로 이송된다. 줄리아가 석방을 앞둔 어느 맑은 날 창틀로 두 방울의 비가 떨어진다. 마른하늘에서 떨어진 두 개의 빗방울을 보고 놀란 줄리아는 그것이 당신의 종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임을 깨닫는다. 부부의 체포로부터 부부가 안전부의 안가에 각각 수감되어 24시간 감시 속에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시절의 이야기들과 그 시절 두 사람의 목상이 이 책의 8장-22장에 담겨있다.

구치소에서 캐빈이 머물게 된 감방은 구치소 내의 환자감방이었는데, 환자감방은 환자들을 위한 방이라기보다는 그저 다른 방에 비해 나은 시설을 구비하고 다른 방들에 비해 수용인원이 적은 방이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에 배정이 된 것이다. 캐빈은 그 감옥에서 1년 반을 더 머무르며 재판을 받는다. 줄리아는 줄리아대로 미결수 신분으로 단동에 머물러야 했다. 그녀는 캐빈의 옥바라지를 하며 증인의 신분으로 조사에 협조한다. 1년 반 동안 캐빈의 감옥일상과 여러 해프닝들, 재판의 진행 그리고 줄리아의 감옥 밖에서 미결수이자 캐빈 사건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삶의 이야기가 이 책의 23-33장에 담겨있다. 이 책은 34-36장에 담긴 캐빈의 석방과 캐나다로의 귀환의 감격적인 이야기들로 마친다.

중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적지 않다. 선교사들은 특히




〈캐빈 가렛, 줄리아 가렛 부부〉

교육과 의료, 복지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북경, 상해를 비롯한 많은 도시에 근대화 시기 선교사들에 의해 건립된 학교와 병원들이 남아있다. 국공내전과 공산화시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선교사가 추방되었으나 개혁개방시기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국가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회의 많은 어두운 부분을 돌보았다. 그 선교사들 중 일부는 북한주민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북한주민들을 돕는 방향으로 사역을 확장하였다. 이 책의 저자 캐빈과 줄리아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복잡한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이들이 하는 사역은 중국당국의 주의를 끌었다. 중국 당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중국과 북한을 위해 일하는 부부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인 특유의 의심의 눈으로 보자면 이들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누구든 상식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북한과 규정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넓은 중국 사이에서 일을 하자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게다가 선교사들에게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진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은 관례와 편법, 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단동이라는 국경도시에 얽힌 전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 “순진하고 착한 선교사”는 희생양이 되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었다. 이들과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추방당한 한 한국 선교사는 최근 중국의 어려움을 보며 다음과 같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전한다. “(중국이 겪는 어려움의 이유가) 중국이라는 국가에 하늘의 복을 가져오고, 중국인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중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아름다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낸 결과가 아니라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적어도 중국 공산정부는 몰랐다. 빛을 쫓아내면 어둠이 임한다는 사실을…”(김형호, “중국을 사랑한 한 선교사 이야기, 좌충우돌 중국선교기,” 은혜출판사, 2020).

과거 오픈도어선교회의 여행팀을 통한 배달 사역과 현장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절이 있었다. 여행일정중 희생을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관련된 장소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우리 팀이 단동을 들를 때면 달리는 차 안에서 김창환 선교사 독침테러 장소를 바라보며 유가족과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 - 2016년에는 역시 달리는 차 안에서 폐쇄된 피터스 커피를 바라보며 감옥에 있을 캐빈 가렛 형제와 가족들

을 위해 기도하였다. 월간 북한소식에도 그의 기도제목을 실었으며 2015년 그의 석방과 관련한 서명운동이 있었을 월간북한소식을 통해 이 소식을 한국교회에 알렸다. 이 책에 묘사된 당시의 상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캐빈과 줄리아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석방된 이야기를 보며 당시 작은 힘을 보탠 매체로서 보람을 느낀다.

오픈도어선교회의 월간북한소식을 비롯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와 기도모임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제목이 있다. 그것은 북한 사역을 하던중 북한에 억류되어 갇힌 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또한 국제 오픈도어가 함께 기도하는 사천성 성도시의 왕이 목사,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북한, 중국 등의 박해국가의 감옥에서 고난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Two tears on the window)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될 때 우리도 기도를 통해 자유와 승리를 위한 행동에 동참한 자들로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 북한 기도 제목

1.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철저한 국경 통제와 정보 차단으로 인해 북한 내지 상황 파악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기독교 박해 수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화되어가는 경제난과 사회 공포 분위기 속에서, 특히 북한 당국의 주요한 색출 대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와 결단, 그리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북녘의 형제자매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병마와 경제난,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오른팔로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잊지 않고 관심과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과도한 통제와 공포정치의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통제가 일정부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비상식적인 수준의 처벌과 무리한 격리 조치로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과 관련 검열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체제에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입막음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인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펜데믹을 빌미로 주민들을 억압하는 행태가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인권 개선과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인권 NGO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은 김정은 시대 처형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처형에 관한 442건의 진술과 암매장과 소각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한 30개의 증언이 담겨있으며 그중 공개처형에 관한 진술도 23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한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지도자의 경우 처형을, 그 외 신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등 무자비한 처벌을 자행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

## 북한 기도 제목

- 교에 대한 비상식적인 적개심과 박해가 하루속히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풀려나고 신원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선교회의 활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 식량 가격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북한의 곡물 가격은 연초에 비해 쌀은 1.7배, 옥수수는 2.4배까지 상승했으며 중국산 수입이 대부분인 설탕, 식용유도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 추수 이후 식량 가격이 잠시 안정되기도 했지만 12월 들어서 다시금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악화된 식량사정 속에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겨울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이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생존을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선교회는 이분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며 북녘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서민들이 추운 겨울과 경제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탈북자들의 안전과 북송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북송의 위협 속에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체포된 탈북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도제목에서 나눈 바와 같이 최근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선교현장에서도 여러 건의 탈북자 체포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작년 11월초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모 선교단체를 통해 모인 탈북자 30명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이기에 북송되었을 때 받을 핍박과 고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탈북자 북송이 중단되고 체포된 탈북자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각 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북한 기도 제목

6. 해외 채류 북한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발로 이동통제가 예상외로 장기화 되고 있고 관련된 이동 통제 등으로 활동의 제약이 여전한 가운데 현지의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겪으시거나 심지어 순교/순직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분투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분투하는 노력과 손길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7. 북한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경은 봉쇄되었지만 복음을 실은 전파는 북녘을 향해 매일 밤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 및 일부 방송의 주파수 변경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송출을 위해 수고하며 협력하는 관련 기관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1월 1일